

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험에 대한 중압감, 부모의 지나친 기대, 유희비마련등의 동기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

이유야 어떻든 10대접대부가 계속 증가하고있는 추세는 성의 상품화와 10대탈선 배급주의 노동기피풍조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바로 우리사회의 불건강성과 도덕지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닐수 없다.

이들 10대접대부들은 서울城北구下月谷동 술집 밀집지역 (속칭 텍사스촌) 을 비롯, 전국곳곳의 룸살롱 카페등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미아리의 S 술집에서만난 金모양 (18) 은 3년경력의 베테랑.

중학교 2학년때 「돈을 벌기 위해」 가출, 구인광고를 보고 이곳에 왔다는 金양은 하루 평균 6명의 손님을 상대하며 월급40만원과 팀으로 받는 월70만원의 수입을 꼬박 「주인의 통장」에 맡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벌써 통장에 모인 돈이 1천만원이나 된다고 자랑하는 그녀는 「이일이 천하다 어쩌다 하지만 다른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면서 「우리가 性범죄를 막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나름대로 「직업의식」을 피력했다.

그는 또 「때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공장에 가면 이만한 돈과 잠자리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지난 3년간 집으로 연락 한번 한적없다는 金양의 유일한 꿈은 내년 겨울쯤 2천만원짜리 계를 타게되면 독립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는 것.

『미성년자라도 상관 없어요. 업주들은 일할 의사만 있는 아가씨들이라면 나이나 가출여부에 관계없이 고용해요』

金양은 『요즘에는 방학을 이용, 아르바이트로 접대부 생활을 하는 여고생들도 있고 낮에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일하러 나오는 아가씨들도 종종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10대윤락」의 온상이 되고있는 유희업소들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가 일했던 룸살롱은 정문앞에 망을 볼수있는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고 심야영업단속경찰이 오면출안으로 전화를 걸어 피할수 있도록 했어요. 룸안에는 각각 따로 출구를 만들어 놓았구요』

한 기술훈련원에서 만난 俞모양 (17) 은 『가끔 구청단속반원이나 파출소 직원이 낮에 들르면 주인과 술을 마시고 가거나 돈봉투를 받

가출을 하게 된다. 한 번 정도 나가는 외박은 나가고 경찰에서 한 정도 나가고 그러데 억울한 남자가 한대씩 10만원 주었는데 주인 예는 나한대 돈은 주지 않고 떼어 먹었다. 그리고 나가서 술에 금주까지 6개월에 주인 술이 보정돈을 상여 가져와 해서 따라 갔더니 나쁜 경찰이라고 하구 다른 내가음대로 하라고 해서 미운주라고 했다.

가출윤락소녀 徐모양 (16) 이 경찰단속에 적발된뒤 매춘의 길로 들어선 경위를 적은 자술서.

동 11. 23

외박 10만원...工場가면 이만큼 법니까 가짜保健證 대량 발급 不法고용 확산

건증발급 때 의무절차였던 주민등록증 확인과정을 삭제, 이제 10대접대부들이 보건증을 받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조치는 성병과 에이즈 확산의 심각성을 우려, 주민등록증확인때문에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윤락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단에 응할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지만 곧잘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여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악용하고 있다.

보사부 방역과 高開仁계장은 「나이를 속이는 업주나 윤락여성들이 문제」라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보건증 인적사항란에 「불상」이라는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허술하게 발급되는 보건증마저도 윤락여성들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아예 진단을 받지 않고 허위로 보건증이 발급되는 사례도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봉고차까지 동원, 유희가를 돌아다니며 유희업소 종사자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과 병원직원들을 지난 20일 무더기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외에도 몇몇유희업소의 경우 아예 종업원들의 보건증을 업주가 걸어 직접 보건소나 지정병원에 가 도장만 찍어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10대접대부들의 범람현상에 대해 각계전문가들은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해소되지않는한 별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李明宣연구원은 「10대접대부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수요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접대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딸, 동생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청소년 선도위원회의 俞聖洙부회장은 「10대소녀들이 집을 나와도 「몸을 팔아」 먹고살수 있는 여건을 이 사회가 마련해주는 한 10대소녀의 가출은 계속될 것이며 10대윤락도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증발이나 실종은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그들을 집밖으로 내몰고 있어요」

俞씨는 이렇게 덧붙이면서 「10대매춘」을 우리 모두의 수치로 인식하는 온 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60만원이 「떡값」으로 나가고 명절이나 단속이 심한 때는 떡값비용이 두배로 늘어난다」고 털어놓았다.

일부병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허위로 보건증을 해주는 것도 10대 접대부를 양산하는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전염병예방법 제55조는 위생업소종사 여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성병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보건소나 보건소 지정 병원에서 발부한 건